

2) 소작쟁의의 발생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순천 농민운동은 1922년 12월 서면의 집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미 주변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쟁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별교의 낙성리에서는 서면 집회가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작인동맹이 결성되었다. 자신들이 경작하던 국유지를 불하받기로 되어 있었던 농민들이 불하가격을 지불할 수 없어 토지가 일본인 지주들에게 방매되고 소작료가 증징된 데 대한 반발이 그 배경이었다.¹⁾ 1600여 명의 소작인이 모인 서면의 집회는 이러한 주변 분위기 속에 치러진 것이었다.

그런데 왜 서면에서 순천 최초의 대규모 소작쟁의가 발생했을까. 서면의 노옹(老翁)들은 서면의 특수한 토질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즉, 서면은 사토(沙土)로 이루어진 농지가 많아 소출이 그만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과 다름없는 높은 소작료가 징수됨으로써 소작인들의 부담이 유달리 컸다는 것이다. 기타 원인을 찾는다면, 북쪽에서 순천읍으로 들어오는 통로에 위치하였다는 조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외부세계의 풍향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고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하다. 또 면내에 대지주가 적고 토지소유와 반상(班常)의 구별에 따른 계급적·계층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어 주민들의 결집이 더 용이했다는 추측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서면과 같은 조건이 농민들의 집단행동의 필요조건은 아니었다. 각 면은 각각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순천 전역에 유사한 면단위 집회가 확산되었다. 각 면의 집회에는 대략 800명에서 1,500명 가량의 인원이 참여했다. 당시 순천군의 인구가 11만여 명이었고 14개 면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집회의 규모와 농민의 결집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집회의 규모와 양상만이 아니라 집회를 통해 제기된 요구도 다소 편차는 있었으나 상당한 정도로 유사했다. 따라서 군당국은 서면의 농민들이 제기한 요구를 평균적인 요구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제기된 요구는 4할 소작료의 관철, 지세의 지주부담, 소작료를 두량할 때 사각두(四角斗)를 쓰지 말고 두봉(斗棒)을 사용해 고봉(高捧)을 피할 것, 소작권 이동을 자제할 것, 불량한 마름을 쓰지 말 것, 소작료의 운반 거리를 단축할 것, 천재지변 복구의 지주 부담, 지주·소작인 친선도모, 무상노역의 강요 자제 등이었다.²⁾

1) 『동아일보』 1922. 11. 17.

2) 『동아일보』 1923. 1. 11.